



나의 장례식 일기

약학과 허지윤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큰아버지가 암 투병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죽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다. 아빠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장례식장으로 가는 택시를 탔다. 택시 안이 너무도 조용해, 마치 꿈속에 있는 기분이 들어 멍했다. 1시간 남짓 달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니 큰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였다. 몇 주 전에 본 모습과는 다르게 젊고 건강한 모습이였다. 그러나 나는 금방 고개를 돌려버렸다. 항상 다정했던 큰아버지의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다. 눈물이 고였다. 큰아버지가 장난을 치는 게 아닌가, 국화 화환 뒤에서 '짹' 하고 나타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버지는 당신과 성향이 비슷한 나를 좋아하셨다. 큰아버지를 뵈러 가면 항상 집 근처 빵집에 데려가 한 아름 빵을 사주시곤 했다. 약사가 될 몸이라고 항상 장난삼아 말씀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던 큰아버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영정 사진을 보면 정말 큰아버지가 이제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나, 최대한 사진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절을 했다. 아빠가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입관식이 진행되었다.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큰아버지를 보자 아빠는 무너졌다. 아빠의 널찍했던 어깨가 순식간에 초라해져 버리고, 이제 장남이 되어버려 무거워진 어깨 위의 짐이 아빠를 짓눌렀다. 아빠는 그렇게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울었다. 아빠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후벼팠다. 아빠의 울음은 처음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다. 입관식이 끝나고 아빠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이 끝났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잠시 머물다 온 느낌이였다.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건 이번이 처음이였다. 며칠 동안 너무 생생하게 장례식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곁에 있었기에 언젠가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나는 가족이 항상 내 옆에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그제야 나는 당연한 것이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별은 순식간에 찾아온다. 이별은 마치 함께 오른 정상에서 혼자 내려오는 것과 같아서 더 고독하고 쓸쓸하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그와의 이별이 너무도 슬프기 때문이며, 몸이 휘청거리는 것은 그와의 추억이 시도 때도 없이 눈앞에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깊은 이와의 이별이라면 정상에서 내려올 때까지 한참을 걸릴 테다. 혼자라면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다. 하지만 후들거리는 다리를 지탱해주고, 휘청거리는 몸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 내려오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한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온 아빠는 가끔 혼자 명상을 한다. 아빠의 산은 너무 높아 산 중턱에서 잠시 몸을 기대어 쉬고 있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아빠의 얼굴에 가끔 쓸쓸함이 비친다. 우리를 보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그 쓸쓸함을 없애주고 싶어 나는 괜스레 애정 표현을 한다. 아빠가 발 헛디뎈 넘어지지 않게, 아빠의 내리막길이 지독한 슬픔만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나는 오늘도 아빠의 손을 잡는다.

나도 언젠가 이별과 마주할 것이다. 할머니와의 이별, 아빠와의 이별, 엄마와의 이별, 어쩌면 형제와의 이별. 하지만 내 곁에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면, 나의 내리막길이 그리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비록 다리는 후들거리고 몸은 휘청거리겠지만, 그 어떤 험난한 여정이더라도 나에게서는 나의 손을 잡아줄 가족이 있으니까 말이다.